

‘누구나, 어디서나’ 쿠팡 파트너스 3인 이야기

2023. 11. 3.



SNS를 안하면 특별해지는 요즘입니다. 모두가 연예인은 될 수 없지만, 누구나 인플루언서는 될 수 있죠. 트래픽이 잘 나오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쿠팡을 통해 꾸준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에서 쿠팡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? 그 중 대부분은 ‘쿠팡 파트너스’ 활동의 결과물입니다.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 광고를 본인이 운영하는 미디어에 걸고,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공유받는 광고 프로그램입니다.

쿠팡 파트너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,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다른 일자리 대비 접근성이 좋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로 일상을 바꾼 세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.

두 아이의 어머니, 장성아 님

“안녕하세요.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 주부입니다.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남편의 이직으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아이 교육비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.

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취업을 하긴 쉽지 않았습니다.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다가 쿠팡 파트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. 자주 이용하는 쿠팡이었기에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. 고수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, 그 결과 점점 수입도 커졌습니다.

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시간동안 쿠팡 파트너스를 하며 삶에 재미를 느꼈고, 중고차이지만 제 생애 첫 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가게에 큰 도움을 주는 쿠팡 파트너스! 앞으로도 평생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쿠팡 파트너스 관계자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.” - 장성아 님

쿠팡 파트너스로 시작한 새 출발, 정운혁 님

“저는 긴 시간을 시험 준비로 보낸 사람입니다. 마지막이라 다짐한 해조차 합격에 실패하고 많이 울었습니다. 한참 울다 뒤돌아보니 제게 남은 건 성실함 밖에 없더라고요.

그렇게 대학생 때 끄적이다 버려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. 주기적으로 생필품 리뷰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았습니다.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,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더 큰 수익을 위해 전략을 짜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

한 해 두 해가 지나고, 결국 저는 취직에도 성공했습니다. 쿠팡 파트너스가 아니었더라면 전 아직도 방 안에 갇혀 울고 있었겠지요. 쿠팡 파트너스는 저를 지독하게 어두운 터널 속에서 꺼내줬습니다.” - 정운혁 님

‘어머니의 활력소’를 찾아서, 김선우 님

“저희 어머니께선 퇴직 후 블로그를 자주 하십니다. 방문자는 적지만 오늘 드신 거, 산 거 등 하루의 일을 기록하시고, 저 역시 어머니 블로그를 통해 어머니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.

그러던 중 쿠팡 파트너스를 알게 되어, 어머니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얻게 되셨고, 퇴직 후 무료하던 일상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쿠팡 파트너스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힘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” - 김선우 님

[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](#)
[연관기사: “몰디브에서 일합니다”](#)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